

發刊辭

족보(族譜)란 조상(祖上)을 알고 혈족(血族)을 찾고 자아(自我)를 알림에 其의의(意義)가 있다 하겠으니

조상(祖上)을 알므로써 숭고(崇高)하신 유덕(遺德)을 알고 배워 항상(恒常) 추모(追慕)하고 숭앙(崇仰)하며 자아(自我)의 뿌리임을 자각(自覺) 자성(自省)할 것이며 혈족(血族)을 찾아 원근(遠近)과 상하(上下)를 가려 서로 돈독(敦睦)할 것이며 자아(自我)를 알리는 데 있어서 는 스스로의 분수(分數)를 지키고 덕(德)을 행(行)하며 인륜(人倫)과 강상(綱常)을 지켜 그 위업(偉業)과 내력(來歷)을 후손(後孫)에게 전(傳)함에 있다 하겠읍니다.

일찌기 당(唐)나라의 유지기(劉知幾)는 정의(定義)하기를 고문화주(高門華胄)한 집안에 태어나 세상(世上)에 빛나도록 덕(德)을 쌓고 재준(才俊)들이 계승승(繼繼承承)하여 부조(父祖)의 명예(名譽)를 나타내고 선열(先烈)의 공덕(功德)을 후세(後世)에 전(傳)함이 족보(族譜)라 하였읍니다

족보(族譜)는 원래(元來) 중국(中國)에서부터 비롯되었으니 그 최초(最初)의 기록(記錄)은 제왕년표(帝王年表)이며 이는 당시(當時) 왕실(王室)의 계통(系統)만을 기록(記錄) 하였고 일반인(一般人)에 관(關)한 것은 한(漢)나라 때부터이니 벼슬(官職)을 추천(推薦)하는 방편(方便)으로 개인(個人)의 내력(來歷)과 선대(先代)의 열력(閱歷)을 적어 그 가계(家系)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하다가 그 후 점점 발전(發展)하여 위(魏)나라를 거쳐 남북조시대(南北朝時代)에 이르러서는 일종(一種)의 학문(學問)으로서 연구(研究)하기에 이르렀다 합니다

우리나라 족보(族譜)의 시초(始初)는 고려중엽(高麗中葉)부터이며, 역시(亦是) 왕실(王室)의 계통(系統)만을 기록(記錄)하다가 일반에게 전파(傳播)되기는 이조성종(李朝成宗) 때부터

이니 안동권씨(安東權氏)의 성화보(成化譜) 문화유씨(文化柳氏)의 가정보(嘉靖譜)가 체계(體系)를 갖추면서 남녀(男女)가 공(共)히 기록(記錄)되었던 것입니다.

단군성조(檀君聖祖)로부터 비롯된 우리 대한민족(大韓民族)도 반만년(半萬年)의 긴 역사(歷史)가 흐르는 사이 오천여만(五千餘萬)의 예의민족(禮儀民族)으로 비대(肥大)하였으며 이중성(姓)이 없는 자(者) 없으니 그 수 이백육십여성(二百六十餘姓)에 구천이백여본관(九千二百餘本貫)으로 분립(分立)되어 있으나 거개(舉皆)의 성씨(姓氏)가 화수회(花樹會)나 종친회(宗親會)를 만들어 상호단합돈목(相互團合敦睦)하면서 족보(族譜)를 발간(發刊)하고 있는 실정(實情)입니다.

혹자(或者)는 족보(族譜)를 봉건적잔재(封建的殘滓)인양 말하고 있으나 현세제사조(現世界思潮)를 모르고 있는 소치(所致)이니 지금 선진외국(先進外國)에서는 보학연구(譜學研究)가 성행(盛行)되고 있으며 미국(美國)같은 나라는 족보도서관(族譜圖書館)이 있는가하면 보학과(譜學學科)까지 설치(設置)한 대학(大學)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경주김씨 백촌공 후예(慶州金氏白村公後裔)들도 그간 십수차(十數次)에 걸쳐 파보(派譜)를 하였으나 수보소(修譜所)의 지역적(地域的)인 편재(遍在)로 교통(交通) 통신(通信)의 불편(不便)으로 전종친(全宗親)이 대동(大同)하지 못하였고 사료(史料)의 고증(考證)도 완전(完全)치 못함으로 인한 오차(誤差)도 막대(莫大)하였습니다.

이러한 연유(緣由)로 선조님(先祖任)들의 유적(遺跡)은 물론(勿論) 묘소(墓所)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망선(忘先)의 죄(罪)를 범(犯)하게 되었고 더욱 놀라운 것은 엄존(嚴存)한 종손(宗孫)까지 망각(忘却)하기에 이르렀읍니다. 이러한 지경에 이르러니 사이비(似而非) 백촌후손(白村後孫)이란 무리들이 나타났고 우리가 잃어버린 선조(先祖)님 묘소(墓所)를 그들 선조(先祖)의 묘소인 양 불법(不法)으로 입비(立碑)를 하는가 하면 우리의 종통(宗統)까지 말

살(抹殺)하려는 간계(奸計)로 혹세무민(惑世誣民)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간계(奸計)에 현혹(眩惑)된 많은 혈손(血孫)까지 그들을 추종(追從)하고 있는 현실(現實)입니다.

다행(多幸)히 그들 간계(奸計)를 뒤늦게나마 지실(知悉)한 종가(宗家)에서 선두분기(先頭奮起)하여 잃어버린 선조(先祖)님의 묘소(墓所)를 찾고 종통(宗統)을 바로 잡으려고 발벗고 나섰습니다.

이러한 등등의 필연적(必然的)인 사연(事緣)으로 백촌공파대동보(白村公派大同譜) 발간(發刊)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존경(尊敬)하는 종친(宗親) 여러분께서는 주저치 않으시고 이번 후보(修譜)에 대동(大同)하여 주시어서 충심(衷心)으로 감사드리오며 특히 이 대사업(大事業)에 멸사봉사(滅私奉仕)하여 주신 수환(樹煥) 기호(基浩) 종친(宗親)을 비롯하여 여러 임원(任員)님의 물심양면(物心兩面)의 노고(勞苦)에 감사드리며 발간사(發刊辭)에 가름합니다.

一九八三(癸亥)年 二月二八日

會長 石 辰 삼가 씀

序 文

族譜가 갖는 意義는 連綿相承하는 血脈史를 正確하게 把握하여 自我位置를 定立하고 祖上의 偉勳을 深究認識함으로서 崇祖思想을 鼓吹昂揚하여 分派昭穆을 體系的으로 明記하여 宗親相互 間의 序列을 分別하면서 敦睦함을 期하려는데 그 目的이 있음을 贅言을 要치 않는다.

今般 우리 白村公派 大同譜編纂은 이러한 普遍的 譜學概念을 超越하여 우리의 派祖이신 死 六臣 白村公의 宗統을 어지럽히는 似而非(金寧金氏忠毅公派) 무리들이 다시는 이러한 放恣한 行爲를 防止하기 위해 僉宗은 더 一層團結하는데 있다.

따라서 이번 族譜發行의 比重은 從來의 그것에 비길 수 없는 莫重함을 깨닫게 한다.

우리 數萬의 宗親이 그 根源을 白村公에 두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行貫을 달리하여 系代맞아 似而非孫들의 系統에 이어 族譜를 한 血孫이 있음은 至極히 不幸한 일이었다.

晚時之嘆이 있으나 이제 이러한 不幸한 要因을 一掃하고 慶州金氏白村公系統으로 歸依하게 되었다는 것은 先祖의 神佑와 加護가 있기 때문임을 믿어 疑心치 않는다.

우리의 先祖가 偉大하였던 것과 같이 오늘날의 이 譜冊을 發行하게 한 僉宗諸位의 快刀亂麻하는 決斷과 執行的 實踐은 祖上의 偉勳을 龜鑑으로 한 슬기있는 行動이 아닐 수 없을뿐더러 宗門歷史의 새로운 章을 펼치게 한 功科는 永遠히 記錄될 것이다.

因循姑息의 事大的 封建思潮속에 數百年이란 星霜속에 뿌리박혀 온 似而非宗統과 行貫의 誤 謬를 씻고 宿願인 宗統定立을 이루는 大同譜를 發行하였다는 것이 우리 宗門의 슬기로움을 誇 示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榮譽로운 大同譜發行의 序章이 纂譜에 머물게 하지 않고 死六臣의 后裔라는 矜持를 갖고 宗親間의 恪別함을 期하기爲해서는 一步를 劃하는 出帆에 不過하다는 것을 覺醒하고

새로운奮發과前進的 努力의 勞를 不惜하여야 할 것이다.

數萬의 宗親이 다함께 宗統定立의 意義와 그 重要性을 銳意自覺하고 一絲不乱한 體系 밑에 大同團結하여 宗事に 임한다면 우리의 宿願인 宗事가 이룩될 것이며, 또 이러한 課業을 遂行함으로써 더욱 燦爛한 功科表를 우리의 后孫들에게 偉承하게 될 것이다.

祖上들이 苦難에 쫓기우면서 山間島嶼로 流離散居한지 五百餘年이 지난 오늘 天符의 血統이 悠然不滅하는 天理에 따라 空前의 大課業을 遂行하는 石辰會長을 비롯하여 事務局長 樹煥、宗親 基浩 宗親과 任員陣의 勞苦에 感謝하면서 序文에 부친다.

一九八三(癸亥)年 二月二八日

后孫 金 昇 濟 謹識

序 文

人間은 항상 天理를 追求하며 眞善美를 生活行動 基幹 哲學으로 하여 生命의 尊貴함과 行爲의 價値觀을 確立하려고 不斷한 努力을 傾注한다.

이가 人間社會構成 發展要因이 되고 그 由來過程이 同時에 人類歷史 形成過程이 되는 것이기에 歷史는 同時共存하는 것이라 하겠다.

萬若 그릇된 作戲로 歷史의 흐름을 그르친다면 天理를 逆行하는 逆天者가 될 것이오 萬世人에 不幸한 反逆者가 될 것이다.

돌이켜 보건대 朝鮮朝 五百年이란 너무나도 限땀한 時代라고 적고 싶다.

國家構成 原理도 爲政의 目的 使命도 忘却하고 오직 党利와 私利 權勢와 富貴에만 眩惑되어 悲慘하고 痛歎스러운 亂流속에서 賢臣들의 犧牲이 그 얼마나 많았으며 良民들의 苦痛이 極에 다달아 그 犧牲이 이루 記述하기 어려울 만큼 酷甚했음이 그 몇번이든가 吾等 慶州金氏 白村公派가 위의 으뜸가는 犧牲人의 하나였기에 極히 痛嘆스럽기 그지없다.

賢祖 白村父子를 冤痛하게 이르고 參百餘年間을 晝晝이 흘려 後孫으로서의 몇몇한 삶의 口實도 다하지 못하고 맥만을 이어 살아온 우리의 限과 그 代價를 어디서 찾으리오 오로지 團結하여 再起의 努力外에는 自求할 길이 없음을 覺醒하였는지라 우리는 모두 한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겠는가.

하나하나의 江물이 모여 大海를 이루되 各其 그 形樣이 다르듯이 人間亦 血緣氏族이 모여 社會나 國家를 構成하되 各其 特有의 由來와 傳統等을 가졌기에 譜學의 發詳根據도 여기에 있다 하겠다.

여기서 우리 宗門은 誤導된 過去와 그릇된 흐름을 矯訂해서 올바른 宗史의 定立이란 實로

榮光된正義의設定이라 하겠고 祖上들의 遺志를 讚揚하며 國民 相互共生에 寄與하는 榮光을 後孫들에 傳하려는 意志와 努力이 今日에 附課된 吾等の 至上課業이라 하겠다.

돌이켜 살피건데 貞忠大節을 爲하여 尊貴하신 曷嘗마져 鴻毛와 같이 저버리신 白村公先祖 任의 垂訓과 遺志를 받들어 偉大한 忠孝思想을 宣揚鼓吹하고 宗門을 整立하며 幾世期間 血淚로 默綴되었던 마디 마디를 證據와 文獻等에 依하여 永遠한 宗門史를 이룩하여 後孫代代에 祖上들의 遺志와 業을 照明해 주실수 있는 基盤을 다지고 거기서 矜持와 슬기로 名譽로운 希望의 터전이 다져지게 될것인즉 어찌 揚揚한 앞날이 期待되지 않으리오.

오늘을 期約이나 하셨듯이 平生間 千辛萬苦를 겪으면서 所重히 남겨놓으신 成彥先祖任의 尊貴하신 偉業과 波瀾萬丈하신 一生을 몸마쳐 慶州復貴 先逢役을 다해주시신 인항 先祖任의 尊貴하신 遺志를 머리숙여 엄숙히 追慕하며 宗門中興의 새로운 章이 마련되어 우리 慶州金氏白村公派 大同譜發刊事業이 名實共히 推進되고 祖上들의 遺志와 宗中の 恨을 貫徹코저 提起한 訟事도 淸州 地方法院에서 勝訴를 하였으니 實로 祖上들의 業과 全宗中の 相互連關의인 天理의 所産이오 또한 勞心焦思 心血을 傾注하시어 本課業 遂行에 온갖 勞苦를 다해주시신 石辰會長任과 樹煥宗親을 爲始하여 在文 吉柱 基浩 宗親들이 앞서 向導가 되시고 全宗親 合心團結하여 얻어진 값진 所得이라고 確信하는 바이며 眞心으로 敬意를 表함과 同時 아낌없는 協助와 鞭撻을 다해주시신 宗外 人事諸位께 深深한 感謝를 드리옵고 今日의 快舉와 明日의 光榮을 祝福하면서 拙文으로 序文에 붙입니다.

一九八三年二月二八日

金 基 喆 謹 書

舊譜序文

四岳之後爲呂爲甫三桓之裔爲孟叔季孫古之分土錫姓蓋多類此況乎雞林之僉敬順之後分爲八貫而爲五十六本此如一源之水別作千派一根之木分爲萬條千派之水其源必深萬條之木其根必固以此知金氏先祖積慶累仁匪夷所思者矣此譜舊貫金寧至忠毅公猶然而中世以混 金海僉謀改貫而所祖三勳洪興有慶州君隋城君上洛君祖封爲貫蓋古有例則隋城上洛宜不無據而此譜之必於慶州得無與舊貫慶州又相混乎曰金海則所自出不同蓋不可混而慶州則同根無傷也然則忠毅公扶植名教成仁取義與三相六臣同其巍巍而舍金寧而爲慶州得無與徑庭乎曰吾金之篤五十六貫皆由子孫而敬順王之爲鷄林自若也以此槩之則雖三貫迭用宜無預於忠毅公而況慶州隋城上洛皆 忠毅公爲祖封乎第念忠毅公以貞忠大節氣亘日月而晚後伸雪子孫久錮流離瑣尾固其所也而爲天冥佑雲仍寔繁亦理勢之所必至也而他人疑之者妄也諸宗之互疑者尤妄也久鬱必大伸并瘁必同榮吾知金氏之嗣興宜無南枝北枝之殊而花葉長春者矣吾願金氏以講睦爲受福之源則可矣金氏秀士鉉默俾字萬相其役旣告之如此又次其語以弁其巷金厚永挾書從余亦以譜中人申其請歲庚子陽復月幸州奇字萬謹書

舊譜序文

人之生得姓久矣未有有源而無派者亦未有有派而無源者必也從源而達派沿派而溯源使源泐燦然明白後世後昆鏡考不迷者維譜爲然此譜所以設也慶州之金源派最遠其初出自新羅大輔公諱闕智傳二十八世諱殷說工部侍郎兼平章事封慶州君始以爲貫子孫繁昌乃公乃卿歷世輝燦遂爲我東大姓盛矣哉然自近而遠自遠而疎殆無以記識其本支之所由是以修成譜牒而其修之也屢矣舊序云重新於崔稷之手稷或是譜學之人耶其後幾年 天啓甲子改修之今去甲己至百餘年矣世代益遞後承益衆未錄者多故金氏諸宗相議將欲添修其譜送其宗人應濂謁文於余余謂金君曰前後譜序旣詳之矣無用架說而抑有一說可爲

金氏鑪錘者余觀人家胄裔之盛且顯者皆由於祖宗積德累仁以垂於後也今以此譜言之麗太祖爲金氏婿顯宗以下皆其外裔奧我康獻聖祖亦金氏自出也寶錄縣遠於千萬年則可見毓慶於鷄林啓運於我朝猗歟盛哉不敢尙論而其餘金氏皆世祿貴同金張至今遺裔不絕何莫非先蔭之有以貽裕者歟登斯譜者油然出孝悌之心如蘇明允所云敦宗睦族又復修善積德克承其緒餘使後世得以蒙休則後之視今必將與今之視昔無異豈非今日諸金氏之所當共勉者乎旣以此語金君仍略記其語而歸之云爾

歲乙酉夏上澣嘉善大夫司憲府大司憲尹鳳五識

舊譜序文

夫人之有姓氏必有譜如水之有源木之有根也源深則其流也長遠根固則其枝也繁茂是以後孫之慶昌蓋由先祖之德蔭也奧自鼻祖大輔公誕降鷄林寶錄聯綿享國三十七世至于中葉敬順王第四子侍郎公諱殷說封爲慶州君子孫以慶州爲貫至玄孫小保公諱稟言破契丹之亂以勳封隋城君移貫隋城至八世孫平章公諱時輿破趙位寵之叛以功封金寧君故以金寧爲貫金寧卽金海古號也世人不知先後金兩金海之有異或云東邦金海之金均是駕洛國首露王之後每有兩金氏族混雜之譏豈不寒心哉無乃譏者之言維知兩金姓貫之同號未知其始祖兩聖之生判然有別故也且以忠毅公之卓行貞節與天地彌亘同日星光輝雖愚夫愚婦皆知其爲忠臣名賢而至於科譜一款其曰未考姓貫者豈非子孫之羞恥乎舉世之疑訝容或無怪後孫之抑鬱倘復如何世傳之遺言家乘之詳說未能發明於世則取譏含忍貽笑積冤其來久矣往在丙午年間宗議會同以貫鄉復舊之意鳴冤輦路之下入啓蒙允卽爲判下以爲慶州舊貫反本歸正刊譜入籍事關下列邑知委教是故今修斯譜則派系之明白昭穆之次序一遵舊例查之重新庶可承祖先之遺躅亦可垂子孫之貽訓蘇明允所謂登斯譜者油然出孝悌之心於余實爲欽慕故忘具潛猥略陳以記

崇禎紀元後四丁巳仲秋后孫志謨謹序

戊戌譜成彥氏跋文

壬午譜聖珩氏跋文

丁巳譜魯巖氏跋文

章默氏跋文

魯學氏跋文

跋文 (編輯經緯)

우리 先祖들께서는 이미 數次에 걸쳐 갖은 어려움을 克服하시면서 研究에 研究를 거듭하여 族譜를 編輯하였다

삼가 先祖님들의 거룩한 勞苦에 尊敬을 禁할 수 없다

그러나 옛날에는 史料를 求하기 힘들었고 또한 交通·通信施設이 없던때라 考證의 正確性은 勿論 部分的으로 族譜를 編輯하였고 特히 우리 白村公派 後裔들은 사ibi孫들에 依하여 宗統이 正立되지 못하여 統一性을 期하기는 극히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世上은 判異하게 달라졌다 이에 正確한 史料에 依해 白村公 宗統을 正立하고 사ibi孫들에 依해 흠어졌던 全門中이 함께 參與하여 時代感覺에 맞는 새로운 내용의 統一譜의 熱望에서 또한 解弛해가는 敬祖思想을 복돋우고 慶州金氏 白村公派의 中興을 爲하여 全國에 散在한 一家를 大同團合케하는 한편 다시는 사ibi孫들이 발을 못붙이도록 法的으로 確正判決을 보기爲하여 一九八〇年三月 寒食 咸平忠毅祠享祀時 大同譜發刊을 議決하기에 이르렀다

그해 九月에 光州市 鶴洞 勉濟 宗親家에서 會長團 會議를 갖고 各門中 代表로 大同譜 編纂委員會를 構成하고 大同譜編纂委員長 金石辰會長을 選出한뒤 다음과 같은 事項을 萬場一致로 採擇하였다

◎ 決議文 ◎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 白村公의 榮譽로운 子孫들은 이제 지난 歷史를 거울삼아 앞으로의 大躍進과 大同團結을 爲하여 歷史的인 宗統正立과 大同譜를 發行할것을 準備함에 있어 萬場一致로 다음과 같이 決議한다

이大同譜는 우리 白村公의 後孫들은 男女不問하고 한분도 빠짐없이 參與하여 收單과 訴訟費用을 각출한다

各門中에 모신 族譜에 記載上의 차이에 關한 問題를 비롯한 門中間의 理解가 相馳되는 事項은 白村公派의 大同團合과 宗統正立을 爲하여 大乘的 大我的 見地에서 小我와 我執을 버리고 서로 양보하여 大同譜 編纂委員會의 調整決定과 委員長의 方針에 承服한다

大同譜 編纂과 宗統正立에 關한 事項一切의 實務를 樹煥宗親에게 委任한다
編纂委員會의 組織과 刊行에 關한 細部事項은 宗親會 會長團에게 委任한다
이는 宗親會를 組織할 때의 再表現이었다 이에따라 같은 해 九月十五日에 臨時總會에서 收單金 壹仟원을 가지고 終前과 같은 方式으로 族譜을 發行하면 發行이 不可能함으로 金樹煥에게 一切의 族譜發行 業務을 委任하여 宗親會에서는 協助事項으로 決議되었다

이 譜를 編輯하는데는 다음과 같은 많은 隘路가 있었다

첫째로 收單金 壹仟원으로 이 巨大한 宗事를 혼자서 完成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벼찬 일이었다 거기에다 收單金도 約五仟單이 이미 消費되었고 收單金 全部가 納入되지 않은 事項에서 四〇〇〇頁를 혼자서 編輯함은 勿論 上系の 先史를 歷史의 考證에 依하여 번역하고 또 現代感覺에 맞도록 發行한다는 것과 宗統訴訟에도 最先頭에서 四〇萬의 사ibi 孫을 相對하여 鬭爭하는데 時間的으로도 큰 隘路가 있었고 또 私生活面에도 큰 隘路에 逢着함이 큰 問題였고

둘째 誇張된 작위와 行蹟 그리고 年代를 바로 잡아야 할 春秋筆法의 立場과 各門中의 敬祖思想과의 調和問題를 圓滿하게 解決하면서 바르게 쓰느냐도 問題였고

셋째 옛날 族譜는 舊譜編輯 以後에 새로이 出生한 분만 追記하여 編輯하는 程度였으나 이번 大同譜는 여러 譜를 基準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운 著述인 것이다

全文章을 現代式 國文으로 고쳐쓰고 史料를 考證하고 年代를 西紀로 換算하여 編輯 하기로 하였으나 時日關係로 上系 一部만 現代感覺에 맞게 編輯함이 編輯者로서가 숨아프게 生覺된다

內容에 있어 生存者만도 壹萬五阡이 넘는 一家들의 來歷에다 過去 各地方에서 산발 적으로 發刊된 數種의 譜冊의 다른 內容들을 合理的으로 整理하는데 時間이 걸렸고 收單內容이 不明하여 많은 時間이 所要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未備한 點이 많으나 이는 後日에 미루고 發展하는 譜學에 期待를 건 다 이 譜冊 編輯에 手苦하여 主신 宗親들을 紹介하면 各門中 代表들을 비롯하여 宗親會 會長團 物心兩面으로 協助를 아끼지 않으신 淳昌 基浩宗親과 漢文에 밝으신 商順宗親 그리고 編纂委員님들께서 編輯課程에서 指導하심이 크시었다

천학박식한 제가 專門分野도 아닌 大同譜編纂을 맡고보니 잘못된 點도 많다 三角山을 녹일듯한 더위에도 영하의 추위에도 오로지 大同譜 編纂만을 보람으로 밤 을 낮으로 알고 大同譜를 完刊하고보니 아쉬움을 禁할바 없다

그동안 이 大業의 成功을爲하여 指導鞭撻하여 주신 全國 宗親들께 感謝하오며 白村公派 大繁榮과 여러 宗親家庭에 萬福이 깃들기를 삼가 비는바입니다

一九八三年 二月 十日

編輯者 金 樹 煥 謹識

一世

金閼智 김알지

始祖大王 시조대왕 (추존)

大輔公 (대보공)

誕 서기六五年三月

신라 제4대 석탈해왕(昔脫解王)九年

본보(本譜)총편참조

六世

仇道 구도

일회 俱道(구도) 經갈문왕(葛文王)추존

신라 제8대 아달라왕(阿達羅王)一九

年一月 서기一七二

년에 파진찬(波珍

浚)제9대 벌휴왕 (伐休王)二年(一八

二世

子勢漢 세한

일회 熱漢(열한) 誕미상

經구보(舊譜)에는 벼

슬이 이찬(伊飡)이

다 신라 제三〇대 문

무왕의 비문(碑文)에

는 공을 성한왕(星漢王)으로 기재

되어있으니 대왕으

로 추존되었음을 알

수있다 崩미상 陵미상 妃미상

七世

子味鄒王 미추왕

일회 味炤王 (미소왕) 本보왕사적편참조

女內禮夫人

奈勿王의妃

女內留夫人

實聖王의妃

三世

子阿道 아도

誕신라 제五대 파사

왕(婆沙王)三二年辛

亥 서기一一一年에 벼

슬이 파진찬(波珍

浚)현 수산청장이

었고 제七대 일성

왕(逸聖王)一五年에

는 갈문왕(葛文王) 慕

慕신전 崩미상 陵

실전 妃미상

八世

女希禮夫人

女內禮夫人

奈勿王의妃

女內留夫人

實聖王의妃

四世

子首留 수류

일회 壽留(수류) 經신라 제六대 지마

왕(祇摩王)一五年丙

寅 서기一二六年에

각간(角干) 현구무

추리에 취임 卒미상

慕신전 配미상

九世

女內留夫人

奈勿王의妃

女內留夫人

實聖王의妃

五世

子郁甫 육부

일회 郁部(육부) 經신라 제七대 일성

왕 一五年에 각간

(角干)에 취임 卒

미상 慕신전 配미상

一〇世

子仇道

일회 仇道(구도) 經갈문왕(葛文王)추존

신라 제8대 아달라왕(阿達羅王)一九

年一月 서기一七二

년에 파진찬(波珍

浚)제9대 벌휴왕 (伐休王)二年(一八